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내년 60회 맞는 제주도문화상



황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 상금 없고 권위 흔들 이름만 문화상

1962년 제정 현재 9개 부문 1차·관광·국내외도민까지 선거법 영향 상금 수여 못해 예술은 여성 수상자 단 2명 추천·선정 절차 재고 필요

문화교육 부문으로 다시 나뉜다. 이듬해는 거기에 체육 부문이 더해졌다. 1982년에는 공익상, 개척상이 지역사회(개발)로 합쳐져 1999년까지 존속했다. 2000년에는 기존 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외에 1차산업, 관광산업, 해외동포 부문이 생겨났다. 2011년엔 해외동포 부문이 국내재외도민, 국외재외도민으로 또 한번 가지를 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통문화, 예술창작을 아우르며 출발한 제주도문화상은 수상 부문만 놓고 보면 문화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또한 예술 분야에 한정하더라도 일부는 결과 발표 후 그 권위에 맞는 인물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는지 논란이 따랐다. 오히려 제주도문화상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 제주 밖에서 주목받는 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었다. ▶예술 분야 수상자 작품 세계 조명=제주도는 해당 부문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장 추천,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이나 교육감 추천, 수상 부문과 관련 있는 도민으로서 성인

2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23~10월 30일 후보자 접수 결과 9개 부문 1~2명씩 13명이 추천됐다. 이같은 추천 방식 때문인지 최근 10년새 예술 부문 수상자를 봐도 단체장 활동 경력이나 교직 관련성이 높다. 여성 예술인 숫자가 절반을 넘어서지만 1962~1979년 제주도문화상을 포함 그동안 예술 부문 수상자 54명(단체 수상 1팀 제외) 중에서 여성이 겨우 2명인 점도 선정 절차를 재고하게 만든다. 제주도문화상으로 출발했으나 본류인 예술 분야가 확대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지자체장이 상금을 수여할 수 없다면 장르에 따라 창작집 발간, 초대전 개최, 기념 공연 등으로 수상자의 작품을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예술 세계를 일군 인물을 수상자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조성일 밴드와 동네책방 음악 여행

동네책방 5곳에서 콘서트가 펼쳐진다. 조성일 밴드와 함께 하는 '제주 동네책방 음악여행'이다. 이번 행사는 책을 파는 일만이 아니라 책읽기, 창작활동, 출판물 제작,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며 마을의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네책방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성일 밴드는 동네책방이 살면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도 넓어진다는 생각에 직접 책방을 찾는다. 공연 일정은 11월 25일 오후 6시 삼달리 삼달다방, 12월 5일 오후 5시

에월을 그림책방&카페 노란우산, 12월 13일 오후 5시 서귀포시 시냇물, 12월 18일 오후 5시 서귀포시 돈키호테 박스, 12월 30일 오후 2시 구좌읍 세화리 풀무집로 짜여졌다. 동네책방에서 운영하는 소모임 회원들의 발표회, 책 이야기 나눔 등에 이어 조성일 밴드의 책방 콘서트가 마련되는 방식이다. 관람료 무료. 책방마다 20명 이내 입장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켜지

### 이창열 작가 금속공예전

이창열 금속공예전이 12월 3일까지 삼현갤러리에서 열린다. '인(因)-연(緣)'이란 제목을 단 이번 전시에서 이창열 작가는 인연, 쓰임, 운명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 아래 적동, 현무암, 스테인레스 등을 재료로 작업한 공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귀금속가공기능장이자 작가인 이창열은 서울과학기술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번이 두 번째 개인전이다. 문의 702-1003.

###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전

(사)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이사장 문춘심)가 11월 28~12월 3일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사계의 연가'를 주제로 열린 번째 회원전을 연다.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는 서양화·한국화·공예·문인화·서예·서각·사진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로 구성됐다. 각 장르마다 지닌 특징을 살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녹여낸 작품을 펼쳐놓을 예정이다. 문의 010-6811-2345.

### 오페라 '해녀' 온라인 중계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이사장 강웅덕)는 창작오페라 '해녀 2'를 이달 23일부터 유튜브 채널 '오페라인제주TV'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21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무관중 비대면으로 현석주 작곡, 김수영 대본, 유철우 연출, 김형삼 지휘로 올려졌다. 출연진은 테너 김신규, 소프라노 강정아 최윤덕 고예진 김수정, 메조소프라노 박선영, 바리톤 김승철이다.

## 순력도 기록화 유일... 오시복의 역할은

(12·끝) 탐라순력도  
순력 장면 28면 등 41면 그림 이형상 '탐라록' 속 오씨 어른 "글씨 요청" 배경 연구 필요  
제주전최·제주소회 바뀐 듯 해제작업 중 속오군적부 발견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목장·산악·도로·마을명·하천 등이 표기돼 있다.

탐라순력도는 1702년(숙종 28) 10월 29일~11월 19일(21일간) 제주목사 이형상이 각 고을을 순시하며 거행했던 행사 장면을 기록한 채색화첩이다. 현재 제주시 소유로 국립제주박물관이 관리 소장하고 있다.

다. 탐라순력도 지역은 3읍 9진성 2섬인데 관찰구역 그림은 35점(제주목 17점, 정의현 9점, 대정현 9점), 비관할 구역은 6점이다. 주제별로 분류하면 군사, 감사, 양료, 봉진, 명승 탐방 등으로 나뉜다. 탐라순력도를 대표하는 그림은 한라장축(漢拏壯麗)으로 목장·산악·도로·마을명·하천 등이 표기되어 있다. 승보시사(陸補試士)는 제주목사 이형상이 시관을 맡아 12명이 응시해 2명이 급제한 내용을 담았다. 공마봉진에는 말 433필, 흑우 20수를 올려보내는 내용이 나온다. 감골봉진(柑橋封進)에서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0일 간격으로 20운(20회) 나눠서 행한 굴 진상 내용이 들어있다. 굴림풍악(橋林風樂)에서는 제주성 안에 소재한 6개의 과원이 확인된다. 교래대렵(橋來大獵)은 사냥놀이가 아니라 진상용 사냥 수렵 장면을 그렸다.

화공 김남길이가 그린 것으로 41면 그림과 서문 2면으로 구성됐고 각각의 폭 하단에 간략한 설명 기록이 담겼다. 순력 내용은 28면이고, 나머지 11면은 순력과 관계 없는 내용의 행사 행사, 2면은 한라장축과 호연금서다.

고원방고(羔園訪古)는 지금의 서귀포시 강정동 용흥 마을 염둔과원을 그렸다. '굴이 있는 동정호와 매화가 있는 서호 경치가 함께 있는 곳'이란 표현은 백호 임제의 '남명소송' 이후 남사록(김상헌), 탐라지(이원진), 남환박물(이형상) 등에 재인용됐다. 병담범주(屏潭泛舟)는 오늘날 용연인 취병담(翠屏潭) 뱃놀이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용두암 부근 해녀들의 잠수 작업 광경이 보인다.

서문을 지은 일자 1703년 음력 5월 13일이다. 순력 다음 해에 화첩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는 유일하다.

한편, 2000년 탐라순력도를 보수하기 위해 해제작업을 하던 과정에 제주속오군군적부가 발견됐다. 탐라순력도를 제작할 당시 배지(背紙)로 사용했던 낱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 조선 숙종 때 정군이 아닌 속오군(예비군)에 대한 군적부다. 직역, 이름, 나이, 부친명, 소속 고을, 거주지, 얼굴 모습, 수업 상태, 흉터, 기아가 기록된 고문서로 이를 통해 그 시기 제주의 방어 체계와 사회제도를 탐색할 수 있다.

최근에 번역된 이형상의 '탐라록'에는 기존 탐라순력도 서문과 다소 다른 대목이 있다. "오씨 어른께 글씨를 요청해 비단으로 장식하여 일첩을 만들고는 탐라순력도라 이름 하였다"는 내용이다. 오씨 어른은 당시 대정현 감산리에 유배왔던 오시복을 말한다. 오시복은 허적과 가까운 남인 계열로 호조·이조판서를 역임한 거물이었다. 이형상은 목사 재임 중 오시복과 간찰을 주고 받았고 결국 이 때문에 파직당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오시복이 탐라순력도 글의 전문을 지은 건지, 제주목사 이형상이 글을 짓고 오시복이 글을 쓴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학계에서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다.

탐라순력도에 지명이 들어간 그림은 제주 4점, 대정 4점, 정의 3점, 별방 2점, 명월 2점 등 36점이 제주전최엔 관덕정, 상아, 목관,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novita**  
A KOHLER COMPANY

#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비데렌탈

**BD-AFE50N**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래변, 순간온수방식, 어린이기능

**월 16,900원**

**BD-N530A**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공기방울리듬세정, 접이식조작부

**월 19,900원**

**BD-N443(리모컨)**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리모컨형, 탈취, 공기방울세정

**월 24,900원**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빙스, 제주제일요양병원, 마리나사거리, 마리나호텔, 신제주로터리

**문의 |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